

# 화마가 남긴 상처

어 설픈 가랑비가 흠뿌리는  
침울한 하루였다.

이런 날 놀랍게도 혜인이가  
찾아온 것이다. 생각해보니  
십여년만의 재회였다. 부산근교  
금정산 골짜기 적막한 암자에서  
덜미를 잡는 그녀의 뜨거운  
오열을 모질게 떨쳐버리고  
돌아선 후 처음의 만남이었다.  
그간 그러저런 생활에  
시달리면서도 내 가슴 한쪽에서  
아픔의 자리를 완강히 지켜온  
그녀가 아닌가!

『언니를 찾아오기 위해  
일주일을 방방 뛰었어. 어떻게  
이런 강원도 골짜기까지와서  
살고 있수?  
덕분에 동해안 절경은 구경  
잘 했지만-』  
음성에 활짝 밝음이 있다.  
필시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그때 그녀의 머리위에  
덮었던 극난을 뛰어 넘은 것이  
분명 하였다. 안면의 흉터  
때문에 긴머리와 짙은 안경으로



윤 청 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245>

거의 얼굴을 가리워 눈빛을 불  
순 없었지만 탁하지 않은  
그녀의 음성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것을 느끼게 한다.

화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시야가 흐려오는 것을 가까스로  
누르고 초라한 방안으로 축축한  
그녀를 맞아 들었다.

『이게 웬일이냐? 혜인아!』  
이 평범한 한마디로 밖에  
나는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것 같은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그 오랜동안, 알량한  
내 생활에 얽매어 더 한번  
그녀를 찾아줄 여유를  
갖지못했던 자책감이 순간  
날카로운 대바늘이 되어 양심을  
쿵쿵 찌르고 있었다. 혜인이는  
여학교때의 꼬맹이 후배였다.  
체구가 작아 감쪽스럽기도  
했지만 생긴대로 얼마나  
상글상글 정겹게 사람을  
따르는지 누구의 어떤 불쾌한  
감정도 스러지게 해주는 묘한  
분위기를 지닌 아이였었다.  
외롭게 모녀 단둘뿐이었던  
환경탓도 있었던지 그녀는  
유난히 나를 따랐고 종가라서  
변잡한 우리집 분위기에  
힘쓸리기를 몹씨도 좋아하였다.  
진학못한 슬픔이나 직장생활의  
고충, 첫눈 뜬 이성의 갈등을  
나와 함께 나누었고 그녀  
하나만의 성장을 위해 청춘을  
헌신한 그녀 엄마의 한많은  
인생에 변화를 주기위한 작전도  
나와 함께 진행시켰을만큼 끓을

수 없는 인연으로 꿈많은 시절을 같이 보냈다. 그런 헤인이가 그 참혹한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보다 깊숙한 인생의 고뇌와 풍상을 유유히 딛고 올라선 불혹지년의 성숙한 여인이 되어 안면에 저처럼 흉측한 상처를 안고도 밝은 음성으로 나설 수 있는 여유를 풍기며 거짓말같이 내 앞에 서있는 것이다. 기억도 생생한 십오년전의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사건! 그것은 헤인에게 있어 번개같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녀의 끔찍한 업고이기도 했다.

그녀 엄마의 재혼을 조르다시피 성사시키고 난 후에도 천애고아가 되었다는 비판과 아픔을 『언니! 난 이제 여왕이야! 우리집은 궁전이구. 신하와 백성이 없으니까 언니가 일인백역쯤 하면 내가 여왕이 될 수도 있잖우?』

이런 억지로 대신 하면서까지 굴굴하게 제 인생을 잘 추스려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었던 그녀였다.

다행히 결혼 상대자로 만난 청년도 성실했고 무난히 결혼하여 반년쯤 개가 쏘아지게 살기도 했다. 허나 그 뜻하지 않은 대화재의 발생은 죄그만 그녀의 인생을 마감시키고 남을 일대 사건이었다. 그때 나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에 살았는데 화재 현장을 비추는 텔레비전을 지켜보며 막연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설마 그곳에 헤인이가 신랑과

더불어 이년만에 딸을 보기위해 미국에서 귀국한 엄마와 함께 불길속에 갇힌 채 죽음과 마주하여 싸우고 있었으리라곤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때 그들이 십이층 객실의 욕탕안에서 열방 엄마의 안위를 염려할 경황도 없이 코를 막고, 물에 잠기며, 창문을 두들겨깨고, 모포를 뒤집어쓰고 덩구는등, 발광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언니! 난 그이와 같이 잠든채로 죽어서 아버지옥에 떨어졌는줄 알았어. 우리가 비행장에도 못나가고 죽었으니 엄마가 출국하면서 얼마나 울까하는 생각이 들었었어.』

십여일이 지난후에야 내가 연락을 받고 달려 갔을 땐 겨우 의식을 회복하여 그 작은 몸뚱이를 온통 봉대속에 파묻고 그녀가 봉대귀신이 말하는것 같이 더듬거리며 던진 첫마디였다.

정녕 나는 울어줄 수조차 없었다. 그 엄마가 절명하셨고 엄마가 떠난 후 그녀 삶의 온통 전부였던, 그녀로선 전지전능한 어떤 神보다도 더 위대한 마음의 터전이었을 그녀의 신랑마저 끝내 살지못한 그때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다.

그녀가 그 참변의 경위를 알고난 후 그 엄청나고 위험한 절망위에 놓여져 전전긍긍 할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그녀마저도 그대로 소생이 아닌 소멸쪽으로 향해가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었었다. 그러나 운명의 神에 의한 악랄한 유희랄까, 아니면 애뜻한 가호랄까, 불행(?)하게도 그녀는 눈에 띄는 쾌차를 보였고 삼개월쯤 뒤엔 퇴원을 해야 했다.

신체에 남은 화상자국은 얼룩말을 연상케 했으나 옷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세포가 타서 오그라붙은 눈꺼풀이며 이마의 흉터는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긴 하나 병원에서 별반응을 보이지 않던, 혼자서 살아남았다는 충격이 태양 아래 활보할 수 없게된 모습에의 절망과 함께 극렬한 발작이 되어 그녀의 남은 이성을 불살라 가기 시작했다.

집안의 기물이 파괴되고 거울과 유리가 남김없이 박살나도 그녀의 그 짐승같은 울부짖음을 우린 눈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그녀가 어릴적부터 살림을 맡았던 아주머니가 이를 앓다물고 말없이 뒷바라지를 했다. 정말 그땐 생명이란 것을 이런 경우에도 굳이 부지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으로 하여나마저도 휘청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그녀의 고통을 단한조각도 나누어 덜어줄 수가 없는 채 우린 관악산에서 부터 시작하여 소요산, 계룡산등지의 한적한 암자들을 찾아 요양을 하도록 도왔다.

66

언니!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 있잖아!  
날 보고 언니가 닮았다고 했던  
그 여배우 말야!  
어느 첩보 영화에서처럼  
그 여배우의 가면을 만들어  
나 때문에 고생한 모두에게 보여  
주고 싶어! 특히 언니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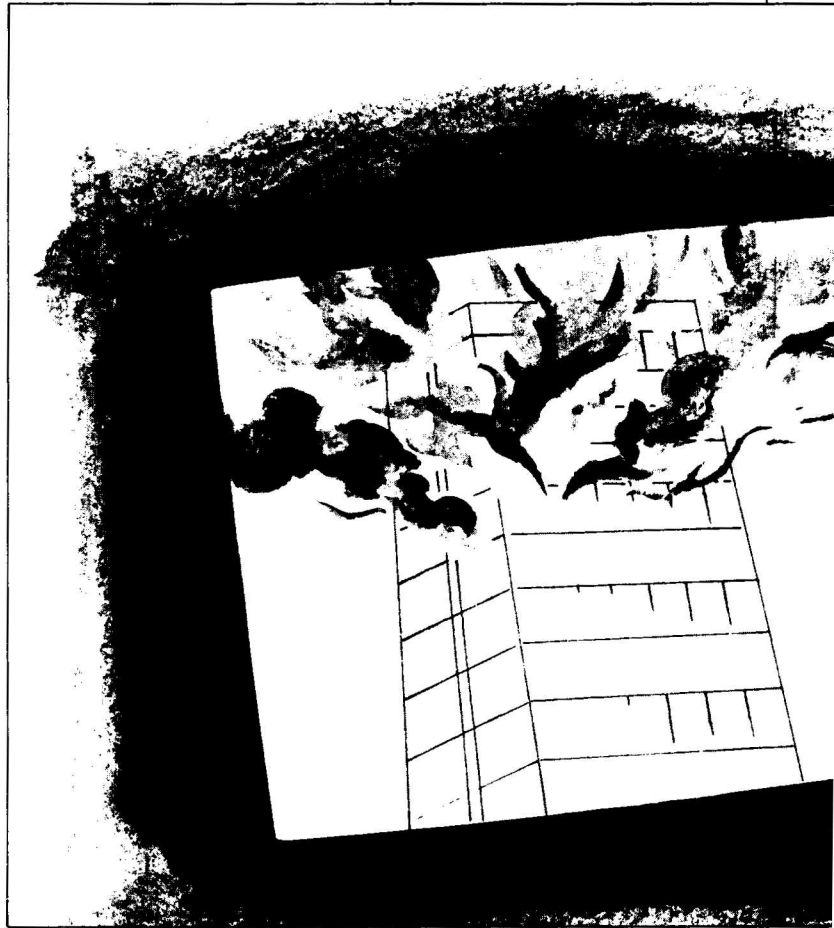
99

아니 그건 요양이 아니라  
절반은 공갈로 눌러앉히는  
우격다짐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비참한 상황이었다.  
그렇건만 나도 내 생활에 쫓겨  
그녀의 그런 순회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금정산 적적한  
암자에서 목매어 돌아선 후  
오늘에 이르고 만 것이다.

그 혜인이가 뜻밖에도 이  
침울한 부술비 속에 산뜻하게  
떠오르다니 냉큼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밤이 깊도록 지속된 그녀의  
이야기는 아슬아슬 하고  
눈물겹고 놀라울 뿐이었다. 이  
작은 체구 어느 구석에 그런  
차돌같은 의지와 인내가 숨겨져  
있었을까?

어떤 영혼의 애절한  
가호지덕인지 아무튼 그 참담함  
속에서도 새롭게 일어서려는  
노력을 버리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이처럼 내앞에 와준  
그녀의 손을 잡고 잇을 수 없는  
이 밤의 순간을 나는 끝일 새



없는 눈물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허공을 향해 읊례를  
거듭할 뿐이었다.

사년여에 걸친 산사의  
생활속에서 덕망높은 스님들의  
설법도 많이 들었고 그에  
용기를 얻어 엄마가 남기신  
가재를 정리하여 성형수술을  
몇번 거듭했으나 생활을  
도려내어 상처에 이식하는  
통증을 견뎌내는 고통과 노력에  
비해 결과는 매번 미흡했으며  
원상에 가까와지리란 기대는 늘  
그녀를 실망시켰다. 다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서서히 생명에  
대한 애착이 솟아났으며 생활을  
위해 서울에 돌아와 백화점  
안에 아담한 수예점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사람들의  
이단적인 시선이나 얇다란  
동정의 말은 건기디가 괴롭다는  
고백에서 나는 목이 메었다.

그러나 다시 서울의 대열속에  
섬이리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것  
만으로도 기적 같은 용기이며  
용단이 아니던가! 생명의  
불가사의가 어김없이 혜인의  
크나큰 불행속에서 또 한번



증명 되었으나 뒤에 의한 것이었는 잠깐의 부주의가 부른 화마에 짓밟힌 그간의 그 참혹한 고통이 여전히 시시때때 그녀의 간장을 태워갈 것이 하나의 확고한 기정사실인 바에야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진땀 흘리며 동분서주 한단들 언제 어느 순간에 한번이나마 살아있음을 진심으로 환희할 수 있으랴!

그녀의 그 위장된 밝음뒤에 처절하게 숨죽이고 있는 각고의 고통과 괴움을 그녀 자신은

이제 숙명으로 체념하고 감수한다쳐도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사람들의 이 아픔은 또 무엇으로 보상 되어야 하는 것일까? 순간의 실수가 치뤄야할 댓가치곤 그야말로 무서운 형벌이 아닌가! 그녀로 하여금 생명을 벗어 던지도록 즐기치게 따라붙을 심산인 화마의 격노한 보복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몸부림치며 울부짖던 그녀의 말대로 이같은 불의 재난은 어떤 종류의 업보에 속하는 것일까? 애처로와서 더 바라 볼수가 없는…….

어쩌거나 오늘 혜인이라는 이 재회만은 삼천대천세계의 존재하는 모든 神에게 감읍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음이 결코 각각의 뜻대로가 아님을…….

『언니!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 있잖아! 날보고 자주 언니가 닮았다고 했던 그 여배우 말야! 어느 첩보영화에서 처럼 그 여배우의 가면춤 만들 수 없을까? 나 때문에 고생한 모두에게 그런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어! 특히 언니에게……』

필경 나처럼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어쩔 수 없이 서울행 고속버스에 오르면서 그녀다운 눈물과 미련대신 앞세운 다시한번 슬프게 위장한 호들갑이었다. 가슴속으로 마구잡이 통곡을 하고 있을

터였다. 솟아오르는 눈물을 오렌지캔을 그녀손에 쥐어주고 나도 쉬운 것처럼 돌아섰다. 가슴이 목까지 차올랐다.

부디 행인들의 철없는 시선이 이 불운한 여인의 머리위에 가시처럼 아프게 박히지 않기를 애타게 빌며 시내버스에 낫없이 실려졌다.

그녀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의지와 인내에 한계가 있을진대 지금의 저 피나는 노력은 과연 변함없이 지탱될지 어떨지…….

손목의 흉터를 감추는 수단으로 멧쟁이 패션모델도 아닌 그녀가 사시장철 손에서 벗어내지 못하는 검은 색의 망사장갑이 차창 너머에서 힘없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앞의자 등받이에 얼굴을 묻고 대관령 구비구비에 비통의 눈물을 뿌리고 갈아아!혜인아!

문득 시키면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십몇층 인가의 아득한 창가에서 담요를 둘러쓰고 아비규환의 소리를 들으며 뒤돌아 서지도, 뛰어 내리지도 못하며 안타깝게 우왕좌왕 하던 한 외국영사관직원의 모습이 보인다. 그날 온 국민은 손에 땀을 쥐고 마음조이며 그가 구출되기를 간절히 기원했으나 병원에 실려간 몇일 후 끝내 사망 소식이 발표 되었을때 다 같이 맥풀려 탄식하며 슬퍼하지 않았던가!

새로운 전용에 몸을 떨며 내가 아닌 것처럼 걸었다. 어디론가 자꾸……. 빛줄기가 세차게 내리쏟아지고 있었다. ■